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샌델(2020)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따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¹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P.28
-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옆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도 그런 표현을 썼다. 정문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잠재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P.31
- 입시 부정 스캔들을 일반적 입시 과정에서의 일탈로 보는 사람들과 이미 대학 입시에 만연해 있던 현상의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추론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뤄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33
-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누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의해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가장 부유한 10퍼센트가 나머지의 몫을 빼앗아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P.34
-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회 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특권층 부모들이 화

¹ 2019년 미국에서 일어난 ‘윌리엄 싱어의 대입 부정 사업

들짝 놀라서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새삼 신경을 쏟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P.35

-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P.38

Chapter1 : 승자와 패자

- 첫 번째 진단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가 주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의 꾸준한 증대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고 있다. (...) 그들은 여성이나 소수민족보다 자신들이야말로 차별의 희생자라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공적 담론의 요구가 그들을 압박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포퓰리즘적 정서의 추한 면을 강조한다. 본토 출생자 우선주의나 여성혐오, 인종주의 등등 트럼프와 그 밖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 과격한 주장들을 그 증거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두 번째 진단은 노동계급의 분노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 변화가 너무도 빠른 데 대한 당황, 그리고 방향 상실의 결과라 본다.² P.43

- 그들은(엘리트) 바로 자신들이 자아낸 분노가 포퓰리즘의 불을 댕겼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소란이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을 깨뜨린 정치적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P.44
- 다시 대중의 지지를 바라기 전에, 이들 정당은 시장중심적이고 기술관료적인 통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승자가 경멸적으로 깔보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P.48
-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²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 일반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엘리트들의 정책 남발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분노

(...) ‘기회 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승 찬가’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미국보다 캐나다, 독일, 덴마크, 그 밖의 유럽 국가에서 더 많다. P.49

-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들은 평등 수준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사회적 상상의 능력은 가난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 보건을 비롯해 직업 세계에서 개인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는 듯 보인다. P.50
-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P.51
-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재능의 소유(또는 결여)를 순전히 각자의 몫으로 봐도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능 덕분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이 노력했지만 시장이 반기는 재능은 없는 탓에 뛰 떨어져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P.52
- 능력주의 신앙은 그들이 입은 상처에 굴욕까지 보탠다. 자신의 곤경은 자신 탓이라는 말, “하면 된다”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 승자에게 갈채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마저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내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P.53
-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틀어 놓았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힌다. P.59
-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는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화를 불러오는 제도였다. (...) 능력주의의 폭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P.60
-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40년 동안 계속되며 정치 담론의 장을 공동화했고, 보통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포퓰리즘의 반격을 촉발했다. 그 반격이란 텅 비어버린 공론장에 무자비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주의를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이다. P.61

Chapter2 :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실 그렇게 해야 대체로 옳다고 여겨진다. (...)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주길 확실히 바랄 것이다. P.65
- 어떤 운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섭리 등에 따라 정해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넘어서 행운 또는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P.67
- 좋은 날씨와 풍성한 수확은 사람들의 선행에 대한 신의 보답이다. 가뭄과 역병은 죄악에 대한 징벌이다. (...) 부는 재능과 노력의 상징이며, 가난은 나태의 상징이라는 현대의 친숙한 시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 성서 신학의 두 가지 면이 오늘날의 능력주의와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첫째, 인간의 능력에 대해 한껏 강조한다. 또한 불운한 사람들에 대해 둘 다 냉혹하다. (...)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불운을 겪는 사람에게 냉혹 태도를 부추긴다. P.68
-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다.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의 윤리, 능력주의적 사고 방식에 적합한 윤리의식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윤리의식은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함께, 자수성가의 어두운 면이라 볼 수 있는 '불안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초래한다. P.76
- 모든 능력주의 윤리처럼, 개인의 책임을 극찬하는 그 개념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꺼워할 만하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될 때는? 사기를 꺾고 심지어 자책에 시달리게 만든다. P.85

Chapter3 :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책임자이며 통제 불능의 힘에 몰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 우리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진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 탓이 아니겠는가. 이 논리는 능력주의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가능하다. 우리 운명이 개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챙길 필요를 느끼기 힘들다.

(...) 공적 문화는 우리 각자 '알아서 운명을 책임져라', '스스로 초래한 운명을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마치 세계화의 승자들이 스스로에게 또 다른 모두에게 납득시키려는 말처럼 들린다. **말하자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과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럴 만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105

- 지난 40년간 능력과 타당한 자격에 대한 담론은 공적 담론의 중심에서 자리 잡았다. 이런 능력주의로의 전환이 갖는 일부 측면은 그 부정적인 성격을 드러내 준다. 이 측면이란 첫째, 책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리스크 부담을 정부와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기려는 태도다. 둘째 측면은 더 야심적이다. 이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언어적 포장'이라 불릴 만한 표현들에서 나타난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대로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재능과 희망이 허용하는 한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 말이다. 개인 책임의 담론과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 논쟁에 불을 붙인 주역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을 초래했다. P.111
- 1980년대와 1990년대, 사회적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는 담론은 복지국가 관련 논쟁에서 두드러졌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연대와 관련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민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한 쪽에서는 더 강력한 연대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보다 제한적이기를 바랐다. P.112
- 능력주의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의 담론 그 이상의 것들에서 비롯된다. 이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상황을 포괄한다. 첫째,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 두 번째, 대학 학위가 그럴 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셋째,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P.125
- 가장 잘나가는 사회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신의 은총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은 힘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P.128
- 내 학생들 중 일부는 이렇게 주장했다. 비록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신화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은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즉 사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사회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P.131

- 능력주의적 약속이 얼마나 노동계급과 중산계급 유권자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굴욕감까지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다. 장벽을 없애고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고 교육 기회를 더 넓혀 일부 특권층이 아닌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데 누가 반대한다 말인가? 교육 균등화, 직업 훈련, 아동 돌봄 등등 자유주의자들과 진보파의 정책들로 혜택을 보는 노동계급과 중산층은 사회적 상승 담론에 이끌려야 하지 않는가? P.133

Chapter4 :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 자신이 트럼프의 학점과 SAT 점수 공개를 막으려 일했다는 코언의 폭로는 포르노배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보다 센세이셔널한 증언에 밀려 충분히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는 의미심장했다. 학력이 얼마나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나타낸 준 것이다. 2000년대에는 대학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심지어 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대통령에게 후광을 씌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로 작용했다. P.140
- 대학 학력의 무기화, 그것은 능력주의가 얼마나 폭정을 자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계화 시대는 노동계급에게 큰 폭의 불평등 확대를, 또한 임금의 정체를 안겨주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퍼센트는 대부분의 이익을 챙겼고, 하위 50퍼센트는 거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P.144
- 성공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인종이나 출신 계층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정말로 평등하다면 꼭대기에 선 사람은 그 성공과 관련된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능력주의의 약속이었다. 더 많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더 많고 더 공정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의 약속 말이다. P.145
- 학력주의 편견은 능력주의적 오만의 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십년 동안 능력주의에 더욱 물들게 되면서, 엘리트들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버릇마저 들었다. P.151
- “오바마가 지명한 고위직들의 사분의 일이 어떤 식으로든 하버드와 연관이 있고, 90퍼센트 이상은 대학원 학위의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낭중지추에 대한 오바마의 믿음은 확고하다. 그 자신이 위대한 미국의 전후 능력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딛고 오른 계층 이동 사다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P.151

- 자신의 정책이 우둔하지 않고 스마트하다며 변명하는 일은 자신의 학력이 출중하다며 변명하는 일과 매우 닮았다. 국무장관에 막 임명되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부장관들 몇몇을 선임하며 이런 연관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저는 스마트파워의 활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마트파워의 핵심은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능한 분들은 제가 아는 가장 스마트한 분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P157
-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들이 다른 약점보다 대학 졸업을 못한 약점이 있는 집단에게 더 반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전형적인 차별 대상 집단들 즉 무슬림, 터키 출신 유럽 거주민, 빈곤층, 비만인, 시각장애인, 저학력자 등에 대해 고학력 유럽인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저학력자가 가장 기피됨을 알 수 있었다. P.160
- 대졸 엘리트가 그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을 어떻게 낮춰 보는지를 넘어, 이 연구보고서들의 저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그들은 교육받은 엘리트가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보다 깨어 있어서 더 관용적이라는 익숙한 생각이 어긋남을 포착했다. (...) 둘째, 대졸 엘리트들이 편견에 거리낌 없는 까닭은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와 관련이 있다. (...) 셋째, 저학력자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은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능력주의적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비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된다고 본다. P.160
-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 최고의 명문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P.164
- 우리 시대의 거침없는 학력주의는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및 민족주의 정당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며, 대학 학위가 있고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능력주의의 가장 큰 상징인 고등 교육 제도에 대한 당파적 견해로 이어졌다. P.171
- 기술관료적 접근을 정책에 쓸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결정권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일반 시민은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또 하는 정치적 설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제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P.176
- 정치적 이견을 단지 액면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과학을 부정하는 일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사실과 의견이 정치적 설득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P.179

- 능력주의 사회의 밑바닥에 놓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신이 겪고 있는 불우함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스스로의 탓이라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재능과 야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회적 상승을 허용하는 사회, 하물며 그런 상승을 찬양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다. P.190
- 마이클 영³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가 운영한 이유로 정해짐을 성찰하는 것이 꽤 득이 된다고 보았다. 덕분에 승자와 패자 모두 자기 인생은 자업자득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덕분에 현행 계급질서를 마냥 옹호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역설적인 효과를 준다. **직업과 기회가 능력에 따라 배분되더라도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는다. 불평등 구조를 능력에 따라 재구축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재구축은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굳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려 놓는다.** P.192
- 오늘날 모든 이들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안다. 기회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이 낮은 지위에 매여 있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자신은 실제로 낮은 지위라는 걸 생각하면 어떨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층민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P. 194
-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건 보통 그 이상에 대한 게 아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고, 전문직업인 계급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능력주의를 세습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P.196
-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릇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 옹호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등에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다. P.199
-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 재능과 천분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릇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³ 영국의 사회학자. 『능력주의의 등장』(1958) 출간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이다. P.201

-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공적 담론을 지배했다 해도,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 신념을 뒤집지는 못했다. 반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적 태도는 더욱 세력을 굳혔다. 심지어 사회적 이동성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도 말이다. P.216
- 하이에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닌 생득적 능력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는 관념에 반대했다. 또한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성에 의존한다고도 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희귀한지 흔해빠졌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나의 소득은 결정된다. 맨큐의 ‘정당한 자격’ 이론은 그러한 우연성을 간과하고 있다. P.220
- 생산물이나 기여는 항상 그 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된다. 윤리적 가치나 인간 생활에서의 중요성 등과는 별 관계가 없다. 어떤 생산물의 금전적 가치는 ‘수요’에 따르며, 이는 다시 소비자 대중의 취향과 구매력, 그리고 대체재의 유무 등에 따른다. 이 모든 요인들은 대체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되면서 창출·조정된다. 따라서 그 결과는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한 윤리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P.224
- 롤스는 경제적 보상에 능력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역시 옳음과 좋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자격에 보상하는 것을 첫번째 원칙으로 사회를 조직한다면, 도둑을 벌주기 위해 재산권 제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P.228
- 엘리트가 갖는 능력주의적 오만에 일침을 하고,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런 행운을 남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지 않겠는가. P.229
- 재능의 배분이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라는 롤스의 주장에 근거한 이들 철학자들은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종류의 개인적 불운에 보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배 정의는 행운의 주인공이 행운의 결과로 얻은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운한 사람에게 넘겨야 함을 명백히 한다.**” P.233
- 어려운 시민들을 심문하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빈곤을 피할 수 있었는지 가려낼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다. 이런 ‘책임의 분해 관찰’은 민주 시민이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기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이는 우리의 시민적 상호책임 근거를 동정이나 연대성이 아니라 ‘대체 그들은 어쩌다 저 꼴이 되었대?’ 하고 먼저 다지는 것에 둔다.

둘째, 현명치 못함에 대한 그런 엄격함만이 문제가 아니다. 행운 평등주의자는 공적 부조의 적격 대상자에게도 굴욕을 안긴다.

- 천부적 재능은 비록 도덕적 자격이 되지 못한다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 찬양을 불러들인다.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로 찬양받을 만해서다. 그러나 또한 성공자의 막대한 보상이 그것을 원인으로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P.241

Chapter6 :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 능력주의의 폭정을 극복한다는 게, 능력이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배분에 아무 역할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그것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것'이라는 능력주의적 오만에 의문을 제기함을 뜻한다. P.247
-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은 '무계급 사회'라는 미국의 이상의 핵심입니다. 만약 다수의 젊은이들이 그 부모의 경제 여건에 무관하게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사회적 이동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젊은이들의 미래가 물려받은 특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된다면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P.252
- 능력주의 시스템의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조명해준다. 첫째, 능력에 기준한 유동적 사회는 비록 세습적 위계질서와는 상반되지만 불평등과 상반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출생 대신 능력에 근거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둘째, '최고의 천재'를 예찬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은 그 나머지를 격하시키며,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비천한 자들'이라고 멸시하기 쉽다. P.255
- SAT는 수학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P.259
- 오직 현행 시스템의 공정성에만 집중한다면 코넬트의 능력주의 혁명의 핵심에 놓인 더 큰 질문을 놓치게 된다. '대학은 누가 인생의 승자가 될지에 대해 재능을 근거로 사람들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 번째 의문은 그런 선별 결과 걸러진 사람들에게 대해 암울한 낙인을 찍게 되고, 그것은 곧 공동체적 시민 생활에 유해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적 경쟁이 인재 선별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 그리고 인재 선별 임무가 너무 과부하됨으로써 대학의 교육 임무마저 경시될 위험성이다. P.270

- 1960년대까지,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들은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그 결과 학업 능력은 전국 대학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능력주의적으로 탈바꿈하면서 대학 선택은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되었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찾기 시작했다. P.275
- 고등교육의 승자독식형 재선별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 자녀를 압도적으로 많이 뽑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은 승자들에게도 피해를 남긴다. 별 문제나 말썽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과거의 세습적 엘리트와 달리, 새로운 능력주의 엘리트는 힘겨운 투쟁을 거듭해야 높이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P.278
- 어느 흥미로운 연구에서 경제학자인 경제학자인 마티아스 되브케와 파브리치오질리보티는 과보호 학부모의 등장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들이 정의한 표현으로는 “과도하게 개입하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며, 통제적인 육아 방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널리 퍼진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 부모 노릇은 불평등이 증가하고 교육으로 인한 보상이 커진데 따른 합리적 대응이었다. 비록 여서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결 같이 부모의 개입이 심해지긴 했으나, 가장 심했던 곳은 불평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곳이었다. 가령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였다. P.280
- 완벽주의는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병폐다. “젊은이들이 끝도 없이 학교, 대학, 직장에 의해 선별되고, 구분되고, 등급이 매겨지는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현대 생활의 한복판에서 싸우고, 실적을 내고, 업적을 이루도록 강요한다. 성취 요구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개인의 능력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결정한다. P.283
- 선별하고 경쟁하는 본능은 대학 생활에도 뿌리 깊게 침투했다. 대학생들은 받아들이거나 내쫓는 의식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낸다. (...) 오늘 날, 특별한 기술이 있든 없든 “캠퍼”이라 불리는 경쟁 시험을 치르는 일은 학생 조직에서 일반적이다. P.284
-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P.289
- 충분한 숫자의 명문대들이 유자격 지원자들을 추천으로 뽑게 된다면,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어도 얼마간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 능력주의의 전쟁터에서 생기는 상처 없이 대학에 입학한 젊은이들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일에는 큰 흥미가 없을 것이고, 개인적 또는 지적 모험에 더 기꺼이 나설 것이다. P.293

- 4년제 대학 학위가 성공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능력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다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헷갈리도록 한다. 그러한 헷갈림은 우리 경제만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급이 하는 유형의 일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도록 한다. P.297
-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윤리학이나 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우리의 잘나간다는 대학들은 근본적인 도덕 및 시민적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 추론과 숙고를 할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기술관료적 스킬과 기술관료적 세계관에 대해 주입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P.298
- 가장 기세등등하던 때조차 능력주의 신념은 그것이 약속한 것처럼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다. 연대의 근거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패자에게 관대하지 않고 승자에게 압제적임으로써 능력주의는 폭군이 되었다. 그리고 그 폭군에게 우리는 그 고대의 라이벌을 대립시킨다. 이는 ‘삶의 작은 영역에서는 운수가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운을 소환하여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려 하는 것이다. P.301

Chapter7: 일의 존엄성

- 지난 40년 동안 대졸자와 고졸자의 수입격차는 두 배로 늘어났다. 1979년,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40퍼센트 정도 많은 수입을 올렸다. 2000년대에는 80퍼센트까지 높아졌다.
세계화 시대가 고학력자에게는 많은 보상을 해주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 생산성은 올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상품 가격에서 갈수록 더 적은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경영자와 주주의 몫은 점점 더 많아졌다. P.307
-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들의 직무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노동 연령의 사람들이 아예 일을 손에서 놓아 버리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P.309
- 케이스와 디튼은 사망률의 증가가 자살, 약물 과용, 알코올성 간질환의 만연에 따른 것임을 알아냈다. 그들은 이 만연 현상을 ‘절망 끝의 죽음’이라 불렀는데, 그 대다수가 여러 방법을 통해 스스로 불러들인 죽음이기 때문이었다. P.310
- “절망 끝의 죽음 사례의 증가는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4년제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례에서 제외된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P.311

- 물질적 빈곤보다 더한 뭔가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이끌어낸다. 학력이 모자란 사람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겪는 고통이 있다면 명예와 보상의 문제다. 케이스와 디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정말 끝의 죽음이란 저학력 백인 노동자에게 장기적이고 완만한 삶의 방향 상실을 나타낸다.” P.312
- 노동계급의 불만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오늘날 공적 문화에 만연한 엘리트의 거들먹거리는 태도와 학력주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일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의 존엄성 문제를 정치 어젠다의 중심에 놓는 일도 필요하리라. P.318
- 자유주의자들이 분배적 정의에 찍은 방점은 오직 GDP를 늘리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에 적절한 균형추가 된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는 전반적인 번영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리고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도 염두에 둔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GDP 증대를 위한 정책들은 승자가 패자에게 적절히 보상을 해줄 때만 정당하다. 예를 들어 세계화의 득을 본 기업과 개인의 증대된 이익은 세금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직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 지원비로 쓰여야 한다. P.321
- 이 상처를 인식하고 일의 존엄성을 복구해 줄 유일한 정치 어젠다는 정치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다. (...)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역할에서 공동선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인정을 받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체성의 대조는 공동선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 방법에 주목하게 된다. 첫 번째로,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익숙한 접근법은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다. (...)

두 번째 접근법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 공동선론을 기각하고, ‘시민적 개념’이라 불릴 만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다. 시민적 이상에 따르면 공동선은 단지 여러 선호를 합산하거나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 다시 말해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한 단계 위로 올리고 개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생산자로서 우리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면서, 사회적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P.323

- 20세기에 공화주의 전통의 생산자 윤리는 소비자 중심적 자유 윤리와 경제성장 위주의 정치경제학에 밀려났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에서도 ‘일은 시민들을 기여와 상호 인정의 틀 안에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P.325
- 헤겔은 그의 시대에 등장한 자본주의적 노동 기구는 오직 두 가지 조건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보았다. “첫째,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모든 근로 활동에 있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P.327

-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미국 공화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헤겔에서 가톨릭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여적 정의의 이론은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 전통에 따르면 근본적인 인간 욕구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일의 존엄성은 그런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 역량의 발휘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소비를 ‘모든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대상’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다. P.328
- 시장 주도적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증표로 해석하는 일은 지속성 있는 유혹이다. 그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저항을 깨트리려 한다.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공동선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장의 낙인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P.331
-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은 우리 성공은 오로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잃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유대관계의 상실로 빚어진 분노의 회오리 속에 있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의 시대가 풀어버린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도록 해야 한다. P.343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 우리보다 사회적 상승에 보다 성공적인 나라라도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P.348
-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유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P.353